

울진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영동 지역에서 시작하여 형산강 일대까지 번성하던 동해안 문화권에 편입시킬 수 있다. 주로 소규모 취락과 분묘, 유물산포지의 형태로 동해안과 가까운 하천변이나 구릉에서 확인되나 많은 수량은 아니다. 취락은 봉산리 494-1유적, 죽변리유적, 후정리 877유적, 덕천리 372유적 등에서 주거지 몇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이 확인되었다. 분묘는 지석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구리 254유적에서 조사된 석관묘와 토광묘가 있다. 조성 시기는 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이며, 후기 유적도 일부 확인된다.

울진 지역의 청동기문화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는 발굴조사된 사례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동해안 문화권의 다른 지역들과 같이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왕피천, 척산천, 나곡천, 부구천, 남대천 등의 주변 구릉과 곡간평야, 동해안의 사구 일대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청동기문화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절 초기철기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원전 300년경부터 삼국이 정립된 기원후 300년경까지를 크게 철기시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시대 구분의 용어상에 다소 논란이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삼한시대(三韓時代)로 부르다가 최근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한정된다는 지역적 한계점으로 인해 부여·삼한시대로 개칭하였다.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100년경을 기준으로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구분하기도 하며, 초기철기시대의 특징적인 점토대토기 중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초기철기시대를 하나의 시대로 설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원삼국시대의 경우에는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고고학계의 입장에서 선사시대에 포함하여 초기철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 100년경을 전후한 시기로 중국 연[燕, BC 323~223]의 화폐인 명도전(明刀錢)과 함께 철제무기와 농공구 등이 서북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서는 기원전 100년경 고조선과 낙랑의 철기문화를 가진 유이민 집단이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정착된다. 철기의 보급은 생활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계층분화가 가속화되며, 전쟁의 형태도 대규모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집터와 무덤이 많이 확인되는데, 집터는 전통적인 움집과 지상가옥 안에 부분적으로 온돌시설이 채용되고 내부공간도 확대되어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덤은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석관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영향과 전통적 무덤 양

식이 결합된 목관묘(木棺墓), 목곽묘(木槨墓), 옹관묘(甕棺墓) 등이 유행하였다.

한편 대동강 남쪽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한반도만의 독특한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어 세형 동검, 꺾창, 투검창, 거울, 방울, 도끼 등을 비롯한 한반도형 청동제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철기는 각종 무기와 농공구, 마구가 주종을 이루는데, 주조품 위주로 제작되다가 점차 단조품으로 변화되었다. 토기도 중국토기의 영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무문토기, 홍도, 흑도의 변형과 더불어 우각형파수토기(牛角形把手附土器),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두형토기(豆形土器)가 등장하게 되고 시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제석기의 전통은 여전히 지속하나 점차 줄어들며 청동기와 같이 의기화되어 갔다.

한편,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환기의 변동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집단의 이주로 도입된 점토대토기유물군, 주거와 취락, 세형동검유물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시간·공간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확산과정은 일정 지역에 도입된 점토대토기유물군과 주거양상이 청동기시대 토착 전통집단의 토기군과 주거를 서서히 대체하는 접촉 및 교체의 과정으로 초기정착지인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남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지리적 확산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 전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확산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전 시기의 송국리문화를 대체하게 되는데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동을 문화접변의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³⁸

초기철기문화를 이루는 점토대토기 사용집단의 유입은 크게 두 갈래의 경로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먼저 해로를 통해 중서부의 한강과 금강 하류역에 이르는 경로와 압록강 청천강 유역에서 원산만을 거쳐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경로,³⁹ 서북지방을 경유한 동해안으로의 유입,⁴⁰ 중서부 지역에서 출발하여 호남과 남해안을 거쳐 동남해안 일대에 이른다는 견해⁴¹ 등 크게 두 갈래의 경로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표지적인 유물인 점토대토기의 유입 시기도 기존에 논의되던 기원전 4세기보다 앞서 기원전 5세기 후반⁴² 또는 기원전 6세기 말⁴³까지 소급시키는 견해들도 있다.

울진 지역에서는 덕천리 372유적, 봉산리 494-1유적, 정명리 289-1유적 등 3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주거지와 수혈 등 생활 유구가 일부 보고된 것이 전부이며, 아직 분묘는 확인된 바 없다. 조성 시기는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1세기 중후반으로 초기철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유적들이다.

울진 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유적의 조사사례가 극히 적고 조사자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

38. 이성주, 2017, 「지석묘의 축조종단과 초기철기시대」『대구·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138~141쪽

39. 박순발, 2004, 「요령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금강고고』1, 충청문화재연구원, 37~63쪽

40. 박영구, 2015, 「동해안 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구조와 전개」『우행 이상길교수 추모논문집』, 진인진, 258~289쪽

41.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2.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5쪽

43. 박진일, 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韓國青銅器學報』創刊號, 韓國青銅器學會, 101쪽

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문화상 복원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이래 동해안 루트를 따라 내려오는 선사문화의 전개양상으로 미루어 보면, 울진 전역의 하천과 바닷가를 따라 광범위한 범위로 초기철기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성혁